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 17:1-8, 고린도전서 15:20-22

최정웅 목사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었는데 모스크바에 묻으려고 하니가 꺼림칙해서, 다른 나라에 혹시 스탈린을 묻어도 되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한다. 다 싫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우리가 묻어주겠다." 옹기니 하고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더니 한 마디를 더 했다고 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입니다." (웃음) 그래서 안 보내고 소련에 묻었다고 한다. 오늘이 만우절이라서. (웃음)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적이 없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간혹 살아났었다. 방금 죽었던 아이로의 딸이 살아났었고, 나 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했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예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다시 죽었다. 완전 부활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한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전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 속 진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전부 역전승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다. 다윗은 도망자였는데 최고의 왕이 되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을 살리는 재상이 되었다. 바울은 핍박자였다가 최대의 진도자로 반전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완전히 역전승하는 역사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린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다. 혹시 절망, 낙심에 빠진 분이 있다면, 오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반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한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참 소망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한다.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다.

1.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다.

(1) 모든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에 빠져 버렸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한다. 그렇게 죄인이 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버렸다. 로마서 6:23은 말씀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23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했다. 하나님 배반한 아담 때문에 전 인류는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로마서 5:12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한다.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그게 왜 나에게까지 오느냐 하는데, 그 죄가 흘러왔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창세기 2:17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한 번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도 있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 "이것은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장영 죽으리라." 이것이 최초의 언약, 율법, 성경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고, 믿었는데 농치고, 원수의 말을 듣고 그 유혹(temptation)에 빠졌다. 결국 그것을 먹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 된 것이다. 사망에 빠지게 된 것이다.

(2)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 우리를 그 죄와 사

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45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베드로 전서 3:18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5:4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예수님이 끝내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흥부의 직업을 아시는가? 놀부 동생 흥부 말이다. 자식을 얼마나 낳았던지, 30명을 낳았다. 먹여 살릴 수가 없다. 형이 부자인데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흥부의 직업이, 부자들이 잘못을 하고 벌을 받을 때 그 벌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했다. 곤장 30대 같은 형벌을 대신 받아주고, 그 값을 받아서 자녀들을 먹여 살렸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내 때도, 형님 대신 동생이 군대를 가기도 하고, 대신 감옥에 가기도 했었다. 속여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더러 들어본 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 공의대로는, 여지없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을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것이다.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3)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이다.

① 로마서 8:1-2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다.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사망과 그 권세를 꺾어버리신 것이다.

②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박살내신 것이다. 히브리서 2:14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멸하셨다고 했다. 요한일서 3:8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일인 죄와 사망의 일을 완전히 꺾어 버리셨다.

③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에베소서 2:1에 말씀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6에 말씀했다.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사망의 결과는 지옥인데,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셨다.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이시며, 참 왕이시며, 우리의 참 선지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요한복음 19:30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다. 주님이 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는지, 계속 의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로 다시 사셔서 마귀를 제압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최고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20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의 처음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내 고향 집이 길가에 있었는데, 길 앞에 보면 집 앞으로 들어 4, 5km 뿐이 있었다. 그런데 3km쯤 떨어져서 아스라이 보이는데, 가을이 되면 벼가 익는다. 그 마을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감나무가 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나무가 크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 파란 나무에 노오란 뿔개가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감이 익는 것이다. 꼭대기에서부터 익더라. 감나무에 감이 익으면, 그 감이 노오랗다가 나중에 바알갈게 되어 익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나가 노랗게 익으면 나중에

모든 것이 익게 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곧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 요한복음 11:25-26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 봤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질문하셨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이다. 요한복음 5:24에 말씀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16은 말씀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47에도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가졌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요한복음 1:12은 말씀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본역에는 특권을 주셨다고 번역했다. 특권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믿으라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다. 요한일서 5:11-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 불려서 한 번 물어봤다. “당신을 왜 자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저는 똑같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장로교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믿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타락하고 넘어지고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간판을 달면 안 되지요. 장로교인들은 요한복음 11:25-26에 ‘영원히 산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장로교 간판을 달면 안 되죠. 감리교나 성결교 간판을 다셔야죠.” 씩 웃고 말더라. 그래서 그 교인들을 보면 불쌍하다 싶다. 천주교인과 비슷하다. 확신이 없다. 내가 이러다가 멸망당하면 안 된다 싶어서 찢찢 맨다. 여러분은 한 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고도 타락 하던데요?” 두 가지다.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은 냉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낙심 중인 것이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하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안 믿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외에는,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었다가 또 빼앗았다가 하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 예수님이 끝내셨다. 나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있으면 한 번 나와 보라. 요즘 자기는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인류가 다 지었다. 하나님이 제시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비교해 보라. 베드로도 가롯 유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지옥에 갔을 것이고 베드로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믿은 것이다. 가롯 유다는 양심적이었다. “나 같은 것은 살 자격이 없어.” 그렇게 목 매 죽은 것이다. 안 믿어서 그렇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란다. 믿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 이해가 되기를 바란다.

(2) 그런데 이 영생에는 육신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늘 말하기를 ‘잔다’고 표현한다. 스테반이 순교해서 죽었는데, 성경은 스테반이 잠들었다고 했다.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다. 부활한다는 것이다. 영혼은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다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1-54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인 줄 믿는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영화로운 부활을 그 날에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참된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아보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된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참된 위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누리면서 승리하라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 장송곡을 부르지 않는다. 김활란 박사도 그렇게 유언했다. “이화의 딸들이,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 달라.” 그래서 정말 김활란 박사의 장례식 때에는 이화의 3찬 명의 악대와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연주하면서 운구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부활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참사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고린도전서 15:57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승리의 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58절에 말씀했다. “우리는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세상 수고는 헛된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열매가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마리아가 살아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는 동네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한다. 기쁘시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한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길 권세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